

(Bishopdale Reformed Church translated sermon summary: Morning service)

설교주제: 주님을 위해 예비하라 [누가복음 1:5-25]

설교자: 레이니어 노퍼 (Reinier Noppers)

5 유대 왕 헤롯 때에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7 엘리사벳이 수태를 못하므로 저희가 무자하고 두 사람의 나이 많더라 8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새 9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10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11 주의 사자가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12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13 천사가 일러 가로되 사가랴여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14 너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15 이는 저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소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저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17 저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앞서 가서 아비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리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예비하리라 18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요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19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20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병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네가 믿지 아니함이어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어라 하더라 21 백성들이 사가랴를 기다리며 그의 성소 안에서 지체함을 기이히 여기더니 22 그가 나와서 저희에게 말을 못하니 백성들이 그 성소 안에서 이상을 본줄 알았더라 그가 형용으로 뜻을 표시하며 그냥 병어리대로 있더니 23 그 직무의 날이 다 되매 집으로 돌아가니라 24 이 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다섯 달 동안 숨어 있으며 가로되 25 주께서 나를 돌아 보시는 날에 인간에 내 부끄러움을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다음 주면 크리스마스입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체크목록엔 어떤 것들이 적혀있습니까? 부모님, 크리스마스 트리, 초대장들, 할 일들, 크리스마스 점심 또는 저녁을 위해 장 볼 것들. 하지만 우리는 주님을 위해 예비되었습니까? 천사가 사가랴에게 나타났습니다. 천사를 마추친 사가랴의 첫 반응은 무서움이었습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모두 의로운 사람이라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은 정직, 진실, 깊고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삶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그들도 다른 여러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까. 경건한 부부였으나 한 가지 깊은 슬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었습니다. 자녀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축복입니다. 언약백성에 속해있음을 세대를 통해 이어집니다. 각 세대는 구원자의 탄생을 기다립니다. 천사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말씀을 전달합니다.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네 아내 엘리사벳이 네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누가복음 1:13). **너의 간구함이 전해졌다!** 성전에서는 향을 피웁니다. 사람들의 기도의 형상입니다. 평화, 구원 그리고 구원자의 오심을 위한 기도. **너의 간구함이 전해졌다!** 여러분은 얼마나 많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얼마나 많은 기도에 응답받지 못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을 포기하고 싶으셨습니까? 얼마나 많은 순간 하나님께서 과연 내 기도를 들으실지 궁금해 하셨습니까? 이 아이는 사람들의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 아이의 목적은 주님 오시기 전 사람들을 예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분께서 친히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준비되었습니까? 요한은 그의 오심을 알리는 선구자였습니다. *"3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이사야 40:3). *"1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의 구하는바 주가 홀연히 그 전에 임하시니 곧 너희의 사모하는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말라기 3:1). 말라기 4:5에서 언급된 왕과 제사장도 두려워하

지 않는 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심판과 은혜를 말하며 그의 의복, 그의 음식, 광야에서 떠도는 삶, 그의 설교 그 어느 것 하나 범상치 않은 것이 없었습니다. 요한은 엘리야보다도 위대한 사람이었다고 예수님께서 말하셨습니다. *“28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이가 없도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하시니”* (누가복음 7:28). 요한은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누가복음 1:15). 요한은 왜 태에서부터 성령 충만함을 입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준비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돌이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할 엘리야와 같은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16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너희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니라”* (누가복음 1:16). 군중들이 요한에게 물려올 때 그는 외쳤습니다. *“7 독사의 자식들이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누가복음 3:7). 군인들은 무장을 하고 사람들을 위협합니다. 그는 그들을 바로잡습니다. *“14 군병들도 물어 가로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가로되 사람에게 강포하지 말며 무소하지 말고 받는 요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누가복음 3:14). 이런 말들은 우리가 크리스마스카드에 잘 쓰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요한의 준비된 말씀은 항상 간단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마태복음 3:2). 우리는 듣고 있습니까?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에 관해 잘 알지 못합니다. 교회 주변을 서성이고 있지만 방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준비되었습니까? *“17 그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로 돌이키시고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지혜에 돌아오게 하시리라”* (누가복음 1:17). 이것은 어느 시대에나 성령의 역사를 시험하는 좋은 예입니다. 가정에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 말라기서의 맥락에서 스스로에게 자문해 보십시오. 실제 시험은 우리가 매일 일상에서 함께 사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하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주를 위해 백성들을 예비하라. 이 명령은 우리를 잘 묘사하고 있습니까?** 스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핑계를 대므로 하나님을 믿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진실이기엔 너무나 좋은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19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하나님 앞에 섰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네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누가복음 1:19). 이 말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고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입니다. 여러분은 이 천사가 전한 말씀을 믿습니까? 핑계거리를 두러대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자를 맞을 준비가 되어있습니까?